

내외 소식

서울 스테이크 대회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1월 25일과 26 일 양일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 제1 와드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24일에 있었던 신권 역원회에서는 가정의 밤을 주제로 스테이크 부장단의 말씀을 듣고 가정의 밤을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필름 스트립을 보았다. 25일에 있었던 일반 총회에는 각 와드와 멀리 춘천 지부에서 온 형제 자매들로 서울 제1 와드의 예배당을 메웠으며 입장을 못한 사람을 위해 상호부조 회실, 1호실과 2호실을 특별히 개방하여 훌륭한 본대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축복을 가져다 주는 희생”이란 제목으로 행한 축복사 김 중균 형제님의 말씀과 고등 평의원이신 김 산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미국 대회에 참가하셨다 돌아오신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최 육 환 형제님의 귀국 보고가 있었으며, 제2와드에서 준비한 특별 찬송을 들은 다음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김 창선 형제님의 말씀과 마지막으로 서울 스테이크 부장이신 이 호남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모임을 마쳤다.

이번 대회를 통해 7명의 새로운 장로가 탄생되었으며, 대관 장단의 지시에 따라 칠십인 정원회가 새로이 조직되었고 새로운 회장 7명이 전회원의 지지를 받았다. 새로 선임된 7명의 칠십인 회장은 모두 선교부장단을 구성하게 되며, 선임 회장에 서 원 전 선교부장이 지지를 받았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뉴 호라이즌”

뉴 호라이즌”은 지난 9월 14일에 발족되었다. 랜디 데이븐 포트 장로, 케이 브록 리찬 장로 맥 월버그 장로, 글라이드 로빈슨 장로 어네스트 엘 건터 장로가 음악을 맡고 칼 앤 앤 더슨 장로가 기술 책임자로 함께 수고하고 있다.

“뉴 호라이즌”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전국의 방 방곡곡에 널리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조직되었다. 선교 부 산하의 각 지방을 순회하며, 라디오와 TV프로에 출연하여 주님의 메시지와 교회를 소개하는 이들은 이미 춘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여수, 광주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대전, 대구, 마산, 광주, 서울에서는 라디오와 TV 프로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현재 “뉴 호라이즌”은 성탄절 특별 모임을 위해 연습중이며 “텐더 애플”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갖게 된다. 금년 성탄절을 기하여 대전과 인천에서 순회 공연을 가지며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공연할 예정이다.



신학 연구원, 한국 지역 세미나

지난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신학 연구원에서는 미국 본부에서 내한한 데이 형제, 롬트스 형제, 버튼 형제와 신학연구원 교직원 및 중등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효과적인 교수법”이란 제목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서울 와드에서는 특별순서로 “파리와 거미”라는 단막극을 공연하여 회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주었다.

이번 세미나를 마친 본부 지도자들은 한국 신학 연구원이 훌륭히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르치려 온 자기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가게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22일 12시 30분 대한 항공편으로 이한 했다.



제 1회 서울 스테이크 대운동회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74년 10월 24일 동대문 상고 운동장에서 서울에 있는 8개 와드와 1개 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운동회를 가졌다.

이 희경 자매가 이끄는 마스게임으로 시작된 이날 운동회는 육상을 비롯한 흥미롭고 다양한 종목으로 모두가 동심의 세계에 젖어 하루를 즐겼다.

전 성도들의 관심을 모은 마지막 축구 경기에서 3와드는 2와드를 2:1로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의 종합 우승은 서울 와드에게, 응원상은 7와드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운동회를 통하여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우의와 유대를 굳게 다짐할 수 있었다.



멜기세덱 상이회 주최“음악의 밤”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가 주최한 음악의 밤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스테이크 제4와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회원으로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과 현재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재능을 발휘한 이 모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회 였다고 음악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회원은 입을 모았다.

이 덕조, 주 덕희 자매의 피아노 독주 이 재욱 형제의 바이올린 독주 테너 권 상현 형제 바리톤 임 규선 형제의 독창과 탠더 애플즈의 합창, 그리고 찬조 출연으로 선교사팀인 뉴 호라이즌의 중창 등 다채롭고 화려한 프로그램은 듣는 이들을 순수한 예술의 경지로 몰고 갔다. 서울 스테이크의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가 발족된 이래 처음으로 가진 젊은 예술인들의 향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는 앞으로도 음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모임을 가져 스테이크 내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재능을 키우고 발표하겠다는 밝은 계획을 펴고 있다.



이 경은 자매, 전국 어린이 피아노, 바이올린 경연대회 피아노 부문 1등

지난 12월 3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는 소년 한국일보 주최, 제2회 전국 어린이 피아노, 바이올린 경연대회가 있었다.

많은 어린이가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서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인 이 호남 형제의 차녀 이 경은 자매가 피아노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여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7살인 이 경은 자매는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미취학 아동부문에 1등을 차지하였다.

영예의 1등을 차지한 이 자매는 보다 열심히 연습하여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4와드, 와드 대회 갖다.

서울 스테이크 제4와드는 지난 11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상향회 대회와 와드 대회를 개최하였다.

토요일에 가진 상향회 대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훌륭한 음악 프로그램과 청소년 연극은 그동안 상향회 활동을 통하여 쌓았던 훌륭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일요일에 있었던 와드 대회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원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짐할 수 있었다.

마산 지부, 물몬 전시회 갖다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마산 시내 창동 빌딩 4층에서는 300여명의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몬 전시회와 영화 상영 모임이 있었다.

특히 부산 지역과 마산 지역의 선교사 40여명이 모여 안내와 복음 전도를 맡은 이번 모임은 많은 구도자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모든 순서를 마쳤다.

또한 저녁 모임에 있었던 친목회를 겸한 영화 감상회와 지방부 제1보좌인 배 영천 형제의 특별 말씀 순서가 모임을 한층 뜻있게 해 주었다.

선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산 지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장로 8명과 선교사 8명이 각각 짝이 되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

배 영천

형제, 일본신문에 교회 소개

지난 10 월3
일자 일본 동
화 신문에는 말
일성도 예수 그
리스도 교회 한
국 선교부 영
남 지방부 지
방부장단 제1보
좌로 수고하는
배 영천 형제의
주변을 다룬 훌
륭한 기사가 게
재되었다.

지면 관계로
원문을 모두 번
역하여 실지 못
하고 3일자 동
화신문을 그대
로 옮겨 실는
다.

豊かなる社会建設の若きホープ

「現代の企業経営者はそれが自己独りの所有物ではなく、全従業員汗の結晶であり、従って国民の宝であり、国家に捧げ、教訓を土台として、独自の境地を開拓して来た。同業界の類しきホープ。」

「運輸業は民族発展の循環動力である。が故にその設備の現勢の初創期(1950年代から

「現代の企業経営者はそれが自己独りの所有物ではなく、全従業員汗の結晶であり、従って国民の宝であり、国家に捧げ、教訓を土台として、独自の境地を開拓して来た。同業界の類しきホープ。」

「現代の企業経営者はそれが自己独りの所有物ではなく、全従業員汗の結晶であり、従って国民の宝であり、国家に捧げ、教訓を土台として、独自の境地を開拓して来た。同業界の類しきホープ。」

企業公開の先駆者

金紡株式会社
釜山事務所長 裴永天



「家庭は失敗した人間は、如何なる社会的成功でさえも、これを償ってはいけないのだ。かくの如きゆるぎなき信念あるが故に、裴所長の現代企業家としての良心の叫び声には切実なる真理の響きがあるのだ。」

종교인 축구 대회 참가

주간 종교사에서 주최한 제2회 종단 대항 축구 시합이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효창 운동장에서 열렸다.

총 9개 팀이 참가한 이번 시합에 처녀 출전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팀은 평균 연령 30 세로 최고령자 팀이 되었다.

본 교회팀은 이날 시합에서 우승을 차지한 원불교팀과 예산에서 접전을 벌인 끝에 아깝게도 2:0 으로 석패하고 말았다.



동광주 지부의 김 용장 형제 결혼

지난 10 월 19일 광주 지부에서는 박 병규 지방부장의 주례로 김 용장 형제와 김 해주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다.

동 광주 지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김 용장 형제는 훌륭한 신앙과 간증을 갖고 있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형제는 오랫동안 찾던 자매를 바로 광주 지부에서 찾았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호남 지방부에서는 처음 있는 회원간의 결혼이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인 부부가 되었다.



発行所 東和新聞社
發行人 李秀峰

東京本社
東京都中央区茅場町2-18
郵便番号 103
電話 東京(668)6091(代表)
振替口座 東京130342番
大阪本社
大阪府東区博労町5-27
郵便番号 541
電話 大阪代表(251)0237
振替口座 大阪117754番
韓国支社
ソウル特別市鍾路区
新門路1街7番地(世宗ビル)
電話 (72)2309

東和新聞社1974